



어느 숲자리에 대한 斷想

최 근 학교와 지역, 핏줄에 의해 연결된 인연이라는 학연·지연·혈연의 쓰임새를 보면, 어감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순수성이 결여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어떤 혜택을 주고받는 것인 양 말이다. 세간의 시각이 그러하니 꼭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지면을 떼우기가 개운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혀 기획되지 않은 자리에서 전개된 내용에 대한 나름의 단상(斷想)이라는 점이다. 그 미련 때문에 이 지면을 빌게 되었다.

특정분야 탓하기보다 소소한 주변 돌아봐야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시간이었다. 서랍 속에 놓여있는 휴대폰이 위용을 과시라도 하듯 요동쳤다. 오래 전 박사학위를 받고 모 지방대학서 강의하고 있는 후배였다. 일주일 후,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몇몇 선배와 동반 상경할 기회가 있다며 시간을 비워 두라는

요청이었다. 딱히 다른 일정도 없었거니와, 있다하더라도 그분들의 상경을 외면할 수도 없는 막역지우들이며 농학 분야를 전공한 나름의 석학들이었다.

그렇게 마련된 저녁시간, 천재일우의 기회인만큼 고요함이 찾아 올 틈이 없었다. 또한 활동분야가 다르지 않다 보니 굳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공통분모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기빠서 마실 때는 절제가 있어야 하며 백약의 으뜸이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술도 일잔 씩 곁들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약에 관한 이미지 개선이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협회 명칭을 작물보호협회로 바꾸었다는 등 먼저 운을 뚫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러자 동석한 모 교수는 얼마 전 농약관련 집필을 부탁 받고 황당했던 일화를 털어냈다. 집필의뢰자로부터 농약이 미치는 환경영향과 피해에 관해 집중 조명해 달라는 전제가 있어 결국 도중에 접고 말았단다. 균형감이 결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한 사람이 거들었다. 폭넓게 생각하면 인간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정 요소, 물질만이 환경 오염원이 아닌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오염 요소들을 닦하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세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배기량이 얼마가 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등 따져보면 소소하게나마 환경 오염원이 부지기수란다. 농약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藥)”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영위하며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동차는 공해의 주범이므로 자전거를 타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조목조목 짚는다. 그런 논리라면 결국 자전거도 쓰레기가 되므로 오염요소이기도 마찬가지란다. 사람이 아플 때 또는 아프지 않기 위해 “약”을 복용하듯이 작물도 병해충으로부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약”이 필요하고 그것이 농약이라는 인식 전환이 제일 급선무라는 것이다. 소금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이거나 많이 섭취하면 발암 물질이 된다. 어떤 물질이든 적소에 적시에

적량이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러면서 원시농법을 주장함으로써 98%이상의 관행농법을 영위하는 순수한 농업인들과 관행 농산물 소비자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빼 놓지 않았다.

연이어 지인들은, 외국에서 짧지 않은 기간을 사는 동안 잔류농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잔류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소란스럽고 민감한지 모르겠다. 농약의 오·남용은 고유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안전성이 확보되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이 같은 차이는 결국 정보접근의 상이함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고 매조지 한다.

물론 이날 주석(酒席)에서 벌인 담론이 모두 옳다는 주장은 아니다. 특정분야의 의견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다만, 이들의 이구동성에 별



박 학 순
한국작물보호협회 홍보부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함이다.

‘안전성’ 확보해 가는 것

올해로 직장생활 18년째인 대부분을 현재 소속된 분야에서만 안전성 홍보를 위해 적잖이 일해 왔다. 그러면서 농약 관련 대소의 문제가 지적되거나 발생할 때마다 원인은 대부분 농약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귀결되는 해결 과정도 무수히 지켜봤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짚어볼 대목이 있다. 농약이 첨단 과학의 산물이고 농산물 안전성 또한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앞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임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농약=위험’ ‘농약=독극물’이란 부동의 공식(?)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굳건한 인식 속에 더 이상 ‘농약 안전성’이 침투할 공간은 없다. 왜 일까? 이유 또한 복잡하지 않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성장해 오는 동안 농약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지식도 습득할 기회가 도무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단 한 줄이라도 교과서에 언급된 부분이 있다면 ‘환경·수질오염’ 아니면 ‘인체유해’를 담은 경고성 문구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면 그릇된 인식을 지니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언론도 예외라 말하고 싶지 않다. 도대체 국민들이 농약의 유익성과 순기능에 대해 인식할 만한 보도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오로지 ‘맹독성’ 아니면 ‘치명적’ ‘기준치의 몇 백배’ 등의 긴장하기에 충분한 단어로만 포장, 보도하려는 경향은 없었는지 이제는 되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의약이 사람의 약임을 고마워하듯 농약이 농작물의 약임을 문제시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지는 얘기가 아니다.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애써 피하기보다 공유하지는 것이다. 그 역할을 관·연·산·학·연의 특정분야에서만 전담하기에는 깨야 할 벽이 너무 두텁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1만년의 농경 역사 중 이상기후나 병해충 발생 때마다 흉작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기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농약의 효능에만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농약과는 천양지차이다.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농약의 탄생도 그 가치도 없다. 이제는 기본인식을 넓혀야 할 때이다. ‘과학의 진보’에 걸 맞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농약이 자리하게 하는 불행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다.

농약산업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일지도 모른다. 연간 1억명 이상의 세계인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면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찾을지도 모른다. 대개는 안전이라고 하면 100% 완전한 절대적 안전만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올바른 사용’에 의해서만 ‘이기(利器) 고유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과연 ‘안전’이란 무엇이며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 물품들의 절대적 안전성은 기 확보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제는 과학이 잘못된 상식이나 선입견에 자리를 내주는 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